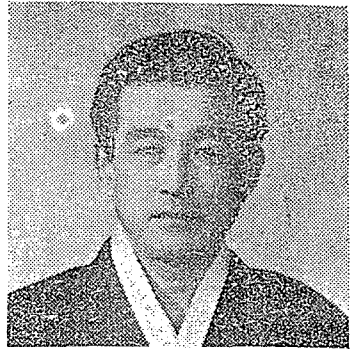


아메리카 圖書館의 周邊 (1)

金 世 翊



序

1965年 12月末부터 約 1年동안 나는 美國과 구라과, 中近東, 東南亞, 香港, 日本 等 20 餘個國의 여러 形態의 도서관, 도서관학교, 도큐멘테이션센터 그리고 그것들과 관계되는 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돌아 왔다. 나의 旅行의 주된 目的은 도서관학 분야에서 크게 크로즈얼되고 있는 도큐멘테이션 그중에서도 情報檢索의 機械的處理에 관한 研究를 하는데 있었다. 이 研究旅行에 所要되는 一切의 費用은 유네스코 本部에서 부담해 주었다.

이 記行文은 觀光客의 世界一周 旅行記 같은 것은 아니다. 내가 目的하는 바는 같은 길을 걷는 한국의 라이브레이리언들에게 새로운 도서관 활동과 봉사에 대한 이미지를 浮刻시켜 주자는 것이고 도서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圖書館學概論的인 知識을 주고 一般人士들에게는 圖書館과 圖書館學의 社會學的인 存在意味를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나의 이 記行文에 文學的인 手法이나 要素가 다소라도 있다면 그것은 汎教養의이라야 할 새로운 라이브레이리언 像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66年 10月호부터 12月호 까지 3차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 기관지인 「도서관」에 이 記行文의 一部가 실렸다. 이달부터 「도협월보」에 連載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前者의 계속이겠지만 독자의 類型이나 잡지의 性格을 고려하여 描寫나 文章構成을 달리 했다.

「안 아바」와 미쉬간 大學에서

1月 24日 「크리브랜드」를 떠나서 미쉬간大學이 있는 작은 大學村 「안 아바」에 到着했다. 「안 아바」는 「빅그텐」(十大大學)中的 하나인 미쉬간大學을 위해서 있는 도시(도시라기보다 村)로서 「안아바」의 모든 住民이나 建物들이 미쉬간 大學과 관계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美國에는 이런 大學村이 많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大學만이 세도(?)를 부리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내가 「안 아바」에 온 것은 미쉬간大學도서관학교를

보는 것이 첫째의 理由이고 다음은 美國에서 模範的이라는 이 大學의 Undergraduate Library 를 보고자한 것이다. 美國의 大學 도서관의 特色은 大學에 도서관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中央圖書館 即 Research Library 이고 또 하나는 學部學生을 위한 Undergraduate Library 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나라의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의 概念의 中間쯤 되는 것으로 勿論 完全 關架制이다. 따라서 Research Library 는 教授와 大學院 學生을 위한 研究 圖書館이다. 美國의 大學에서는 本格的인 學問은 大學院에서 한다. 또 이 Undergraduate Library 에서는 閱覽室(書庫는 따로 없고 壁面書架나 알코브式)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圖書館에서의 吸煙은 世界 어느 도서관에서도 禁止되어 있는 것이 常識인데 이 미쉬간大學에서는 許容되고 있다. 나는 이 點에 대하여 館長에게 質問했더니 그는 「美國의 學生들은 男女할것 없이 거의 全部가 담배를 피웁니다. 그들이 도서관에서 熱心히 工夫하다가 담배 생각이 나면 不得已 도서관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持續的인 工夫에 支障이 있고 또 現在까지의 調査에 의하면 담배를 때문에 도서관이 타버린 例는 없습니다. 다만 換氣裝置만 잘 된다면 도서관에 담배를 끝까지 禁止할 理由는 없습니다.」 이렇게 對答하는 것이다. 換氣裝置나 火災에 대한 對策이 不充分한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곧 이것을 본말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문제인것 같다. 또 이 미쉬간大學의 Undergraduate Library 의 特徵은 美國의 大學學部教育을 發展시키는데 거의 理想的으로 資料選擇이 되어 있다는 點이다. 그래서 美國의 다른 大學의 Undergraduate Library 는 다만 이 미쉬간大學의 資料目錄만 카피해서 그대로 資料를 注文하면 되기 때문에 모두들 구차스럽게 資料選擇 作業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美國의 合理主義의 思考方式은 이런데서도 엿볼 수 있다. 美國 社會全體가 그러듯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劃一主義의 手法에 驚嘆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밖에 미쉬간大學도서관에는 다른 大學에 비해 훨씬 充實한 亞細亞圖書館이 있다. 이 「에이시안 라이브러리」의 責任者는 鈴木라는 日本人인데 대단히 精力的이어서 活潑한 奉仕를 하고

있었다. 그는 韓國 著者名의 로마字化 問題에 대하여 여러 가지 質問을 했는데 나도 文敎部에서 制定한 표기법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터임으로 確實한 對答을 하지 못했다. 參考로 말하면 美國의 各圖書館에서 하고 있는 方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發音대로 적당히 표기하는 곳과 또 「메켄 라이샤와」표기법을 使用하고 있었다. 文敎部式으로 하는 곳은 볼 수 없었다. 이것은 圖書館 業務에서 꽤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되는 것이니 圖書館協會가 中心이 되어서 權威있고 妥當한 표기법이 制定되기를 바란다. 萬若 그렇지 않으면 過去처럼 (現在도 그런 傾向이 있지만) 어떤 個人이 個人的 作業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 나라 도서관 全體로서는 오히려 混亂한 招來하게 된다. 도서관 業務라는 것은 처음에 輕率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修正할 때는 時間的으로나 經濟적으로나 2倍以上이 걸린다는 것을 記憶할 必要가 있다.

이 機會에 美國의 도서관에서의 韓國資料에 대하여 概略的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美國의 도서관은 汎世界的이다. 全世界의 資料가 蒐集되고 知識의 世界性이 強調되고 있다. 이것은 美國이 世界에 대하여 차지하는 政治的 經濟적 位置를 考慮할 때 首肯이 간다. 美國에서는 그것이 公共圖書館이건 大學圖書館이건 世界各國의 資料가 備置되어 있으며 司書도 世界各國에서 모여와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와 判異한 現狀이다. 韓國資料도 그 例外는 아니다. 美國國會圖書館에는 2萬以上の 韓國資料가 있다. 하바드大學圖書館에는 그 보다 더 많은 資料가 있다. 韓國資料는 大概 「에이시안 라이브러리」(亞細亞圖書館) 또는 「파 이스트 라이브러리」(極東圖書館) 「이스트 에이시안 라이브러리」(東亞細亞圖書館) 등으로 불리우는 部署에 中國資料 日本資料 等과 같이 있다. 다만 韓國資料의 數가 中國이나 日本에 비해 엄청나게 적다는 것과 그 資料選擇이 초라하기 그 지 없었다. 어떤 것은 한푼의 價値도 없는 冊이 美國圖書館의 書架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서글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圖書館이라는 것은 俗世에서 생각 하는 것 처럼 冊이 얼마나 많으나 또 建物이 얼마나 크나 하는 따위는 第二義의인 것이다. 얼마나 많은 資料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效果的으로 利用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서관은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圖書館에 있는 韓國資料의 質이 그럴뿐만 아니라 冊의 체계의 초라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製本이나 印刷가 아마 世界에서 가장 초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美國의 도서관들이 韓國資料에 無關했다는 事實을 탓하기 前에 우리 스스로가 反省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慶賀할 일도 없는 것

은 아니다. 美國의 各圖書館에서 近來에 와서 韓國文化 韓國資料에 대한 關心이 急激히 高調되고 있다. 컬럼비아大學의 亞細亞圖書館 館長은 나를 보고 이런 부탁을 했다. 「이번에 어느 財團에서 韓國資料購入을 위해 10萬弗을 寄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目標은 하바드大學보다 더 많은 韓國冊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10萬弗의 韓國冊을 사기 위한 가장 좋은 方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 自身은 우리 나라 文化財가 어떤 理由이건 美國에 流出되는 것을 反對하는 터임으로 애매한 對答을 하고 말았다.

그後 韓國에 돌아와서 華山書院의 古書가 曰可曰否되는 것을 보고 그때의 생각을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되었다.

美國圖書館에서 韓國資料가 中國이나 日本의 그것에 비해 劣勢인 것은 韓國資料를 다루는 司書가 中國人이나 日本人 司書가 많다는데에도 큰 理由가 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으나 美國의 이름있는 大學圖書館의 東洋關係 責任者는 中國人이다. 館長은 여러해 前부터 中國資料室 日本資料室과 같이 韓國資料室을 만들기를 권해 왔다. 그런데 그 中國人은 韓國冊은 모두 中國冊의 亞流가 아니면 카피에 지나지 않는다. 韓國文化란 따로 存在하지 않는다. 그것은 偉대한 中國文化의 支流에 不過하다고 떠버려 왔다. 이 中國人의 농간 때문에 끝내 韓國資料室은 따로 없고 中國資料室의 한 구석에 초라하게 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大學의 한 젊은 教授가 하바드大學에서 韓國學으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勿論 그 豐富한 韓國資料를 구사해서 研究했던 것이다. 이 젊은 韓國學博士는 그 大學에 와서 韓國學講座를 開設했다. 이 教授는 大學圖書館 韓國資料室의 新設과 資料購入을 要求하게 되자 마침내 그는 그 中國人 責任者와 正面으로 對立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경우 같으면 그 中國人은 博士 教授 앞에 屈服하게 되겠지만 美國은 다르다. 美國의 大學圖書館의 司書는 教授待遇를 받기 때문에 그리 만만치 않다. 그 싸움은 그後 1年 계속되었다. 내가 그 大學을 訪問했을 때가 바로 그 時期였다. 그 大學의 學務處長은 그 問題에 대한 나의 見解를 묻는 것이었다. 내가 젊은 韓國學教授를 支持한 것은 不問可知이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美國뿐만 아니라 구라과 여러 나라 도서관에서도 흔이 있는 일이다.

나는 우리 나라의 有能한 司書가 많이 海外에 進出해서 도서관을 通해서 國威를 宣揚해 주기를 바란다.

비단 이런 일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圖書館의 發達은 그 나라의 國力과 正比例 한다는 事實이다.

이리하여 나는 한 주일동안 미쉬간大學에 있었다. 그동안 몇개의 高等學校圖書館과 公共圖書館을 보았다.

美國의 學校圖書館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검토할 機會가 있었고 公共圖書館에 대해서도 다른 章에서 具體적으로 言及하겠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안 아바」에서 約 40마일 떨어진 아주 작은 農村圖書館에 갔을때 한 사람의 司書가 約 百戶되는 마을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혼자서는 일이 벅차기 때문에 그 마을 젊은 이들은 交代로 자기 마을의 도서관 일을 자진해서 도와주고 있었으며 그 司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사람이었다. 住民들에게서 尊敬 받는 司書 이것이 내가 美國의 도서관에서 본받고 싶은 것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었다.

함박 눈이 펑펑 흐터지는 北美의 大學村「안 아바」를 뒤에 남긴채 나는 「시카아고」로 가기 위하여 飛行場에 이르렀을 때 많은 韓國 學生들이 진송하기 위하여 나와 있었다. 數萬里 異域에서 만나는 同胞의 情다운 마음씨에 나는 언제나 조금씩 울곤 하였다.

바람의 都市 시카아고에서

美國 第2의 都市 시카아고 飛行場에 내렸을 때 무서운 寒波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그 때가 바로 우리 나라 大 小寒 썸이었는데 零下 30度도 넘어 보았다.

시카아고의 別名은 「우인디 시티」라고 해서 바람이 거세기로도 有名한 곳이다. 그날이 바로 1月 31日 이었다. 미드랜드 호텔에 旅裝을 풀었다. 나는 시카아고에서 2주일 있어야 한다.

이제는 좀 지쳐 버렸다. 도서관이고 무엇이고 다 귀찮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 하기에 나는 고통스러운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날 나는 有名한 시카아고大學에 豫定대로 갔다. 시카아고大學도 이름난 大學이지만 도서관학교도 美國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名門이다. 이 學校에는 高名한 學者가 많이 있음으로 나는 自進해서 그들의 講義를 두주일동안 들기로 했다.

著名한 圖書館學 學者가 많이 輩出되었고 또 現在도 教授陣이 他學校에 비해 充實한 便이기는 하나 너무 權威主義가 露出된 感이 들었다. 高名한 學者가 반드시 좋은 教授일 수는 없는 것이고 老齡의 教授들은 아무래도 講義에 生氣가 없어 보였다. 美國의 教授方法이 大體로 그러듯이 이곳에서도 講義時間의 大部分을 學生들의 活動으로 끝내고 教授는 다만 要點이나 지적하고 宿題를 내주는 程度였다. 教育方法으로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學生數가 많고 參考資料라고

는 學生들이 읽기 어려운 原書나 日書가 大部分인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美國式대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 나라 圖書館學教育의 問題點이 이런데에도 있는듯 하다.

시카아고大學 圖書館學校에서 發刊하는 雜誌 The Library Quarterly는 대단히 水準 높은 學術雜誌이다. 이것은 1931년에 創刊된 것으로서 圖書館學에 관한 高度의 學究論說의 發表機關이다. 이 雜誌의 別名이 A Journal of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in the Field of Library Sciences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雜誌의 性格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 雜誌는 일리노이大學 圖書館學校에서 發刊하는 Library Trends와 더불어 圖書館學을 學問의 境地까지 끌어 올리는 데 至大한 貢獻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또한 創刊의 본뜻도 그런데에 있었다고 듣고 있다. 이 雜誌의 發行을 위하여 美國圖書館協會, 美國書誌學會 같은 에서도 協力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雜誌의 客觀的價値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아고大學 圖書館學校는 創設趣旨가 美國의 다른 여러 도서관학교와는 判異하다. 美國의 圖書館學 發展에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 이 학교에 대하여 具體적으로 說明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1927年 카네기財團으로부터 1,385,000弗의 補助金을 받아 가지고 시카아고大學內에 開設되었다. 그때 이미 美國의 各州에 많은 도서관학교가 續續 設置되어서 바야흐로 教育內容의 充實과 向上을 期하기 위해서는 有能한 도서관학 教授를 養成하는 것이 時急한 問題로 擡頭되어 美國圖書館協會教育局은 이 問題解決을 위해 努力한 結果 시카아고 大學內에 圖書館學 教授를 養成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여 생긴 것이 바로 이 學校이다. 따라서 시카아고大學 도서관학교는 그 學問의 水準이 높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또 事實上 다른 도서관학교에 비해 圖書館學 博士를 많이 輩出시키고 있다.

1927年 이 學校의 開校式에 當時의 시카아고大學 總長 컷펠博士는 「하바드大學의 法科, 존즈 호프킨스大學의 醫科처럼 우리는 圖書館學의 最高學部를 만들겠다」라고 壯談한 것을 보더라도 이 學校의 性格의 一面을 알 수 있다.

시카아고에는 또 하나 重要한 도서관이 있다. 시카아고大學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即 일리노이工科大学 바로 뒤에 有名한 The John Crerar Library가 있다. 이 도서관은 美國 國內에 있어서의 最大의 科學技術專門綜合圖書館이며 科學技術情報 서어비스뿐만 아니라 翻譯센터로서도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英國 런던에 있는 Aslib 과

더불어 世界的으로 有名한 이 文獻館 센터에 갔을 때 그 도서관 職員中에 韓國사람이 두분 在職하고 있었다.

美國 各處의 生産工場에서 資金을 負擔하고 그들의 「리써어치」를 이 도서관에 依賴하고 있었다. 이 圖書館 建物이 特異한 것은 窓의 유리가 全部 黑色이어서 自然光線은 室內에 들어 올수 없고 오직 人工光線으로만 照明을 하고 있었다. 自然光線은 아무래도 變化가 많아서 視力에 좋지 않다는 것과 日光의 直射가 書架의 冊을 傷하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自然光線을 拒否하고 適當한 人工光線이 더 좋다는 새로운 圖書館 照明理論에 立脚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그곳을 訪問했을 때 담배를 피우라고 주는데 그 담배는 아무런 商標도 이름도 없는 민짜 담배였다. 異常해서 무슨 담배냐고 물었더니 어느 담배社의 新製品인데 市販하기 前에 이 도서관에서 科學的으로 品質을 鑑定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美國에서는 담배 生産이 우리 나라처럼 國營이 아니고 單純히 民間 自由企業이기 때문에 品質이 좋지 않으면 다른 製品과의 競爭에서 落伍하게 된다. 담배의 品質까지도 鑑定하는 도서관 다시 말해서 담배의 品質을 調査하고 鑑定할 수 있는 도서관…… 새로운 도서관의 機能에 대해서 驚嘆하지 않을 수 없었다. 傳統的인 意味의 도서관들이 새로운 方向을 찾아서 變모하고 있다는 증거 일 것이다.

湖水가의 大學 위시컨신

시카고大學에서의 豫定도 거의 끝날 무렵 나는 그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위시컨신大學을 訪問하기로 했다. 위시컨신大學의 도서관학교도 美國圖書館協會에서 認定을 받은 이른바 아크레딧트 라이브라리스 클 중의 하나다(1966年 當時 美國에는 36個의 아크레딧트 라이브라리스 클이 있었다). 美國에는 有名無名의 도서관학교가 百餘校 있는데, 그 중에서 施設이나 教授陣이나 學生들의 質에 대하여 美國圖書館協會委員會에서 嚴格한 標準에 따라 도서관 학교를 審査하여 여기에 合格이 되면 認定을 하게 된다. 그 認定을 받은 도서관학교는 格이 높아져서 卒業生들의 待遇도 좋고 就職도 優先的으로 된다. 그래서 모든 도서관학교가 이것을 받으려고 努力하지만 그 審査가 嚴格해서 通過하기가 쉽지 않다. 위시컨신大學은 바다처럼 넓은 湖水가에 散在한 캠퍼스를 가진 아름다운 大學이다. 내가 돌아본 美國의 많은 大學中에서 가장 아름다운 大學이었다. 이 大學의 圖書館學校 學長은 圖書館學界에서 이름있는 「몬로우」女史이며 그녀는 前에 美國國會圖書館에 있던 분이다. 또 이 학교는 獨立된 建物을 가지

고 있어 極 有利한 條件에서 工夫하는 것 같았다. 「몬로우」女史는 나에게 이 학교에 韓國學生이 前에 한사람있었는데 實力이 不足해서 落第했기 때문에 다른데로 가버렸다고 하며 韓國에서 圖書館學을 工夫하려 美國에 오는 學生들은 특히 英語實力을 充分히 가져야한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 했다. 美國大學에서 英語로 하는 講義를 제대로 알아 듣자면 相當한 語學實力이 要求되며 어설픈 英語를 가지고 갔다가는 落第하기가 일수이다.

위시컨신 大學에도 美國의 다른 큰 大學과 같이 韓國學生이 4, 50名이나 在學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자진해서 그들과 만날려고 하지 않았다.

美國에 와서 얼마동안 있어보고 알게된 것은 美國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一般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바쁘다는 事實이다. 그들은 時間을 돈같이 아낀다. 故國에서 왔다고 特別한 理由도 없이 그들과 만나서 時間을 浪費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어디로 가나 굳이 韓國사람을 찾지 않기로 했다. 美國에서 工夫하는 韓國學生은 大部分 苦學을 하고 있다. 일 할 意思만 있으면 일 자리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서 한 시간동안 시시덕 거리면 그 學生은 2弗 몇 센트의 損害를 보게된다. 이렇게 金錢的으로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 사람은 公연히 同胞이라고 찾아 다니는 버릇이甚하다. 美國같은 社會에서 보면 그런것은 하나의 感傷的 同胞愛라는 것을 알게 된다. 美國 사람들은 用件만 끝나면 씩씩 돌아서서 다음 行動을 取한다. 美國 사람들이 사는 方法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點은 우리도 배우고 싶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시카고 오히라 飛行場을 떠날때 시카고大學의 어느 教授가 전송을 나왔는데 우리같이 飛行機가 떠날 때까지 아니 떠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송대에 서서 손을 흔드는 것이 보통이겠는데 이 사람들은 飛行場까지 車로 데려다 주곤 「잘가시오」라는 한 마디만 남겨 놓고는 씩 돌아가 버렸다. 처음에는 惝恍해 보였으나 그것도 一理 있는 것이라고 알게된 후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韓國의인 그 넘쳐 흐르는 人情 같은 것은 아예 찾아 볼 수 없지만 그들의 人情은 또 惝恍에서 惝恍하게 해준다. 事實 우리 나라의 그런 複雜한 人情은 우리의 自由를 구속하는 것이고 人間關係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좀 드라이 하게 살 줄 알아야 하겠다고 느꼈다.

나는 美國에 있는 동안 한번도 美國사람이 不親切하다거나 冷情하다고 생각한 일은 없었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人情이 있다. 그 人情은 本質的으로 우리의 그것보다 더 濃度가 짙은 것일지도 모른다.